

### 중앙 시평



柳錫春  
연세대 교수  
사회학

누구나 자기 시대가 가장 어렵고 자기 처지가 가장 힘겹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즘 우리네 삶은 유난히 고달프다. 어디를 봐도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도대체 여유롭고 편안한 것이 없다. 다들 쪼들리고 바쁘고 불안하고 지쳐 있다.

#### 다들 쪼들리고 불안한 삶

이와 같은 고단함의 이면에는 바로 우리 사회의 속도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더 '속도'가 중요한 덕목으로 돼고 있다. 빠른 것, 더 빠른 것에 환호하고 조금이라도 느리고 뒤쳐진 것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우리다.

빠른 사회를 쫓아가다 보니 삶이 바쁘고 몸이 지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속도에 발맞추지 못할까봐 마음은 늘 불안하고 자칫 속도의 대열에서 낙오라도 하면 실제로 이것저것 생활이 쪼들린다. 그러니 누군들 이 속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사실 한국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는 어제·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이런저런 부실사고를 경험할 때마다 술하게 비난을 받아 온 터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 문제가 일 개인의 반성을

히 거부할 수 있는 천박하거나 만만한 삶의 이데올로기만도 아니다. 오히려 주지하는 바대로 합리성의 원칙은 근대 서구문명을 경유해 오늘날의 전세계를 임태한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기원이다. 불확실한 구원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초인적인 의지로 철저히 삶을 금욕화한 기독교 개신의 원동력이 바로 이 합리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합리성은 경제적이기 이전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었다. 오늘날의 합리성은 적어도 그 기원에서 도덕성과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 속도 경쟁과 합리성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리임을 말해준다. 너나없이 빠름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일종의 집단광기라고 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 시대·이 사회의 합리성의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빨리, 먼저, 앞서서'의 합리성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느리게, 나중에, 뒤서서'를 비합리성으로 규정해 배척한다.

속도와 합리성은 그 자체로서 비난받을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단

속도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합리성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분명 크고 많다. 생존조차 빠듯한 세계 최빈국의 위치에서 그나마 앞선 나라들을 쫓아가려니 속도의 논리가 첩경일 수밖에 없었을 게다. 그리고 그 속도의 힘으로 우리는 이나마 발전된 오늘을 이룰 수 있었다. '빨리, 먼저, 앞서서'의 합리성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의 합리성이 임계치를 넘고 있다는 데 있다. 시속 1백km의 자

동차는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만 시속 2백km의 자동차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무도 모른다. 전자의 자동차는 '이동'을 하지만 후자의 자동차는 '질주'를 한다. 전자에서는 생각과 대화, 이해와 공감의 있지만 후자에서는 주관만이 있다. 전자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지만 후자는 목적에서 이탈하고 있다.

#### 목적 이탈한 질주도 예사

임계치를 넘은 우리 사회의 합리성은 많은 것을 상실케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와 도덕성의 상실이다. 속도의 합리성이 목적을 향한 이동이 아니라 목적을 이탈한 질주가 될 때 그것은 도덕성과 의미로부터 분리된다. 원래 의미와 도덕성은 찬찬한 고려와 이해, 동감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 역(逆)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속도의 합리성은 이런 느린 감정의 작용들에 대해 비합리성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빨리 앞서서 먼저 가는 데 의미와 도덕성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 저기를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인 사람에게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도 예외이지 않아 보인다.